

# 차세대 해상무선통신 기술 및 표준화 동향

유진호 한국선급 e-Navigation TFT 연구원  
 김준태 한국선급 e-Navigation TFT 책임  
 박개명 한국선급 e-Navigation TFT 팀장



## 1. 머리말

국제해사기구(IMO,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)에서는 해양사고 저감과 첨단 ICT 기술을 선박과 해양에 적용하기 위해 GMDSS 현대화와 e-Navigation 도입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. 우리나라 해양수산부는 IMO 해양안전 분야의 새로운 국제규제 도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IMO 차세대 해양안전종합관리체계 기술개발 사업(이하 한국형 e-Navigation 사업)에 착수하여 3가지 핵심과제로 나누어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.

- **한국형 e-Navigation 사업 개요**
  - 핵심1과제: 한국형 e-navigation 서비스를 위한 핵심 기술 연구개발
  - 핵심2과제: e-Navigation 운영시스템 및 해사 디지털 인프라 확충
  - 핵심3과제: 국제표준 선도기술 연구개발

핵심3과제인 국제표준 선도기술 연구개발 과제는 차세대 해상무선통신의 후보기술로써, VDES(VHF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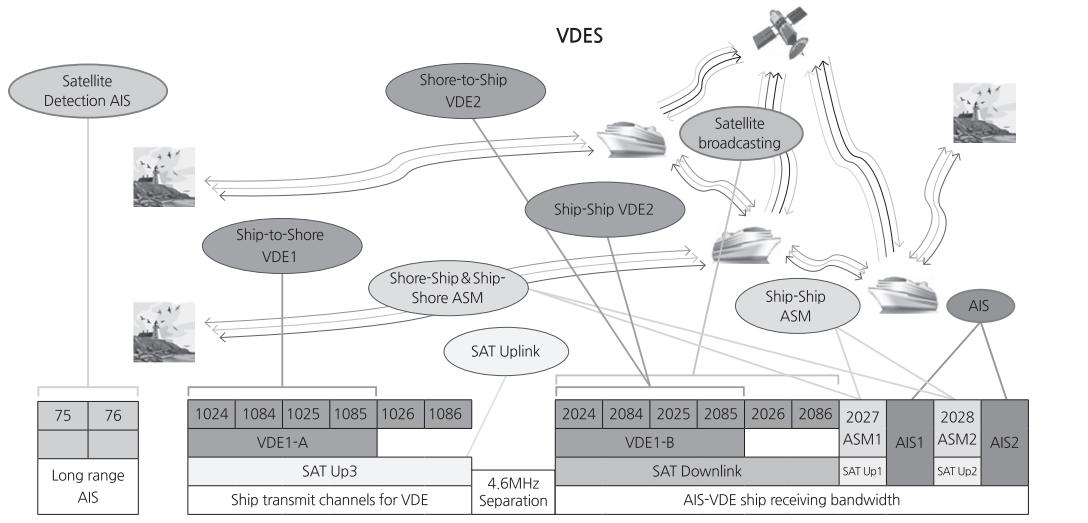
Data Exchange System)과 Digital HF 시제품 개발을 진행 중이며, IALA, ITU, IMO, 3GPP 등 국제표준화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. 본고에서는 IMO GMDSS 현대화와 e-Navigation의 후보기술인 VDES 통신기술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도록 한다.

## 2. VDES 기술요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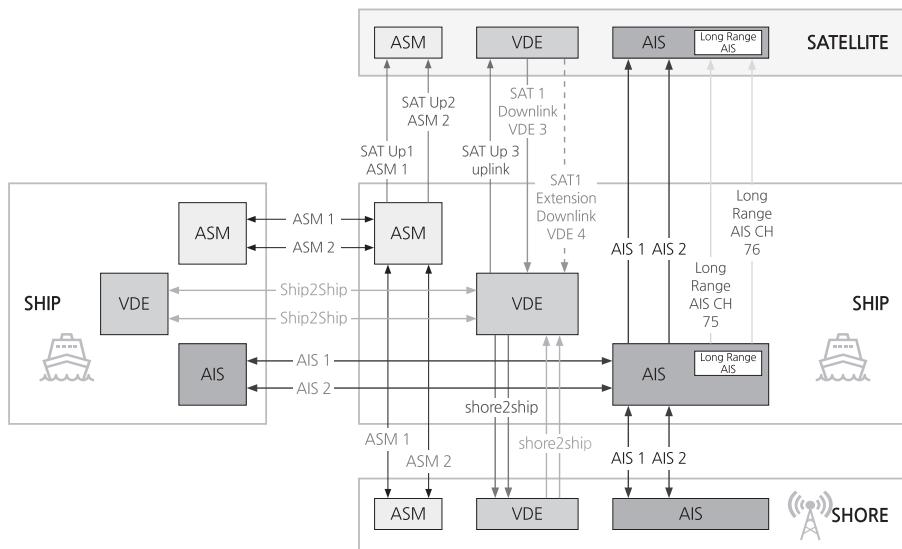
VDES 통신시스템은 VHF 해사 주파수대역(156.025~162.025MHz)중 25kHz 대역폭/채널을 구성하여 지상통신(이하 VDE-TER)용으로 AIS(2개 채널), ASM(2개 채널), VDE1-A(4개 채널), VDE1-B(4개 채널)로 구성된다. VDE 채널은 필요에 따라 50kHz, 100kHz까지 대역을 확장할 수 있다.

위성통신(이하 VDE-SAT)용은 LR\_AIS(2개 채널), ASM-SAT\_up(2개 채널), VDE-SAT\_up(6개 채널), VDE-SAT\_down-link(6개 채널)로 구성된다. 다만, WRC15에서 VDE-SAT 주파수에 대한 승인을 획득하지 못해서 WRC19에서 주파수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.

VDES의 도입은 GMDSS의 현대화 및 e-Navigation



[그림 1] VDES functions and frequency usage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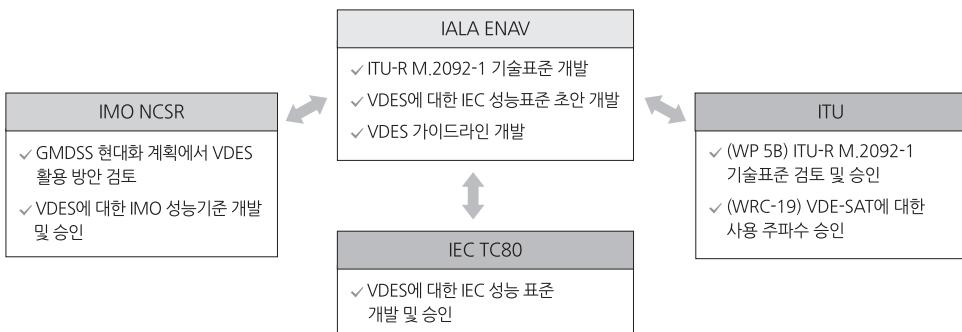
[그림 2] VDES functional scheme in engineering perspective

체계 구축을 위한 확장된 데이터 교환을 가능하게 하고, AIS의 VDL(VHF Data Link)의 과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다. 본고에서는 WRC-15를 통해 확정된 ITU-R M.2092-0 권고안의 물리계층 규격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제표준의 기술적인 동향을 파악하고자 한다.

VDES는 AIS의 위치보고 및 안전관련 정보 전송에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며, ITU-R M.2092-0에 정의된 디지털 메시지 및 지정 호출을 수신하고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. VDES는 접속방식 및 데이터 전송방법으로 TDMA를 사용하고, ITU-R M.2092-0에 기술된 동작 특성 및 기술적 특성과 예

<표 1> VDES Modulation Coding Schemes

구분	AIS	ASM	VDE-TER				
규격	ITU-R M.1371-5	ITU-R M.2092-0	ITU-R M.2092-0				
대역폭	25kHz	25kHz	25kHz, 50kHz, 100kHz				
변조방식	GMSK	$\pi/4$ QPSK	$\pi/4$ QPSK, 8PSK, 16QAM				
통신속도	9.6kbps	19.2kbps	변조방식	25kHz	50kHz	100kHz	
			$\pi/4$ QPSK (CR=1/2)	38.4	76.8	153.6	
			8PSK (CR=3/4)	57.6	115.2	230.4	
			16QAM (CR=3/4)	76.8	153.6	307.2	
수신감도	-107dBm	-107dBm	$\pi/4$ QPSK	-110	-107	-104	
			8PSK	-104	-101	-98	
			16QAM	-102	-99	-96	



[그림 3] VDES 개발 관련 국제기구별 역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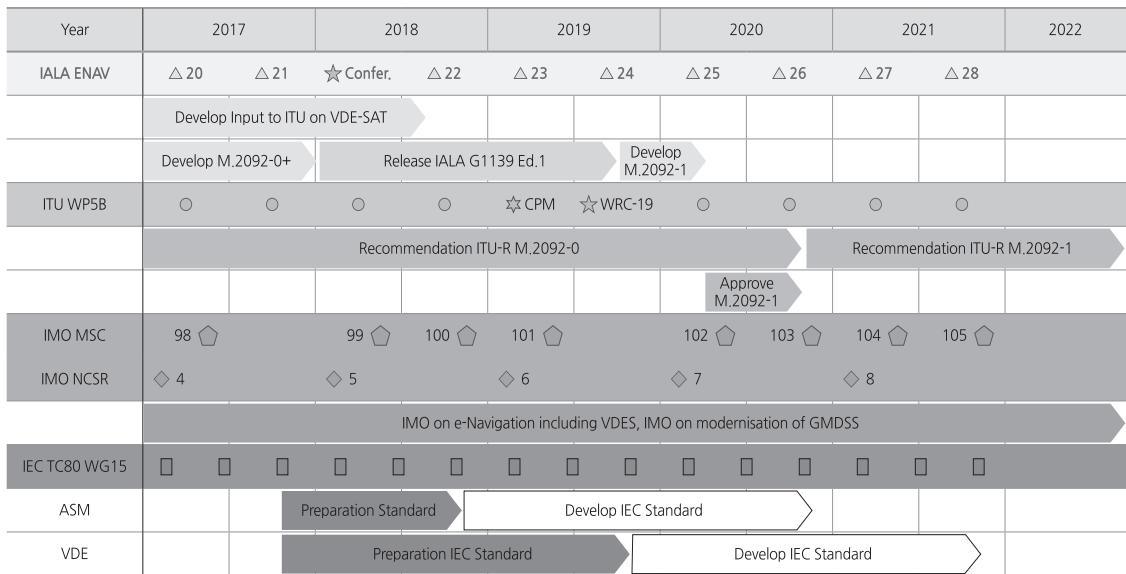
제에 따라 설계된다. [그림 2]는 시스템 설계 관점에서 VDES 기능 구성도를 나타낸 것이다. 과부하 상태인 AIS를 대신하여 ASM 채널을 활용할 수 있으며, VDE를 위해 할당된 채널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전송한다.

VDES는 ITU-R M.1371에서 사용한 프레임 구조를 기반으로 오류정정 부호로 2개의 RSC 부호기로 구성된 Turbo code를 사용하며 32비트 ITU-T V.42 CRC를 사용한다. 또한 스펙트럼 효율 및 처리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적응 변조 및 부호화를 사용하며 <표 1>은 AIS, ASM, VDE-TER의 변조 및 부호화 방

식과 원시 데이터율 및 수신 감도를 표로 정리한 것이다.

### 3. VDES 표준화 동향

VDES 통신시스템은 IALA(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ighthouse Authorities)에서 표준 개발을 주도하여 ITU에 제출하였으며, ITU에서는 2015년 VDES 권고 ITU-R M.2092-0를 발행하였다. 또한 ITU는 WRC-15에서 ASM과 VDE-TER 주파수 분배를 완료하였으나, VDE-SAT 주파수 분배를 결



[그림 4] IALA의 VDES 표준화 로드맵

정하지 못하였다. 이에 따라 ITU는 VDE-SAT의 주파수 분배방안을 결정하기 위해 WRC-19의 제 1.9.2로 채택하였다. [그림 3]은 VDES 관련 국제기구별 역할을 요약한 그림이며, 이 중 IALA의 최근동향을 추가적으로 살펴보자 한다.

### 3.1 IALA의 동향

IALA는 현재 VDES 기술권고를 보완하기 위해 표준개정(안)을 개발 중에 있으며, 2017년 12월 IALA의 기술 가이드라인으로 IALA G.1139를 발행하였다. IALA G.1139는 2020년 ITU에 제출할 ITU-R M.2092-1의 초안의 중간버전으로써 VDES의 링크계층 이상의 기술규격을 보완하고 IEC(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)에서 개발 중인 VDES 시험표준과도 연계하여 개발을 진행 중이다. 다만 IALA G.1139에 따르면 주파수가 결정되지 않은 위성부문은 ITU의 WRC-19의 결정사항을 반영할 예정이지만 부득이하게 위성주파수가 분배되지 못한다면 ITU-R M.2092-1 초안에서

위성부문을 제외할 방침이다. 2018년 7월 중국 이우에서 개최된 IALA ENAV 통신작업반(WG3) 회기간 회의(Intersessional meeting)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현재까지 IALA가 VDES 기술표준(안)을 2018년 말 IALA G.1139 Edition 2를 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.

### 4. 연구개발 현황

한국형 e-Navigation 사업의 국제표준 선도기술 연구개발과제에서는 한국선급이 주관연구기관으로써 코메스타, 에이스안테나와 함께 VDES 시제품 개발 및 국제표준화 논의에 참여 중이다. 특히 IALA ENAV기술위원회의 VDES 표준화 논의에 참여하여 국내 VDES 시제품 개발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과 VDES의 성능향상을 위해 기고서를 제출하는 등 꾸준한 표준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. 국내 VDES 개발팀은 IALA G.1139을 기반으로 2018년 말까지 개발을 완료하고, 2019년부터 실해역 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. 유럽 주요 제조사와 우리나라 VDES 개발

<표 2> 해외 주요 VDES 개발기관과 국내 VDES 개발현황 비교

	콩스버그	SAAB	Stone Three + IMIS	한국형 e-Nav 사업 (VDES 개발팀)
개발 배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MEH Project(2006~2010)</li> <li>SESAME Straits(다수 기관 참여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VDES 프로토타입 개발 (2013~현재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VDES 프로토타입 개발 (2014~현재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한국형 e-Nav 사업 (2016~2020)</li> <li>M.2092 표준화 참여 (2016.7월~)</li> </ul>
실해역 시험 시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Automatic Reporting 테스트베드</li> <li>실해역 테스트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노르웨이: 2016. 하반기</li> <li>- 싱가포르: 2017.2월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실험실 테스트: 2016.9월</li> <li>실해역 테스트: 2017.9월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실해역 테스트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호주 브리즈번: 2018.5월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실험실 테스트: 2018.12월</li> <li>실해역 테스트: 2019.12월</li> </ul>
VDES 프로토타입 장비 사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VDES 해안기지국 및 선박국</li> <li>AIS+ASM+VDE-TER (지상)+VDE-SAT(위성)</li> <li>ASM: 28.8kbps</li> <li>VDE-TER: 최대 307.2kbps</li> <li>VDE-SAT: 240kbps</li> <li>VDE 서비스 커버리지: 85km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VDES 선박국</li> <li>AIS+ASM+VDE-TER (지상)+GPS</li> <li>CML사의 VDES 1000 칩셋 사용</li> <li>송신출력: 최대 50W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VDES 해안기지국</li> <li>ASM+VDE-TER(지상)</li> <li>송신출력: 최대 50W</li> <li>ASM: 28.8kbps</li> <li>VDE-TER: 최대 307.2kbps</li> <li>VDES 서비스 커버리지: 120km</li> </ul>	
VDES 개발 현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기존 AIS 장비에 VDES의 일부 변조방식을 추가하여 구현함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ITU-R M.2092 기반 실해역 테스트 결과를 발표함</li> <li>해안기지국, 선박국, 위성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ITU-R M.2092 기반 실해역 테스트 결과를 발표함</li> <li>선박국에 한함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ITU-R M.2092-0 및 IALA G.1139 최신규격 기반으로 개발 중</li> <li>해안기지국에 한함</li> </ul>

현황을 <표 2>와 같이 분석하였다.

## 5. 맷음말

IMO에서 e-Navigation 전략의 이행을 지원하는 미래 해상 디지털통신의 핵심수단으로써 유럽, 중국, 일본 등 국제사회는 VDES 통신시스템의 도입을 위해 IMO, ITU, IALA 등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. 특히 중국은 2018년 7월, IALA ENAV Intersessional 회의를 개최함과 동시에 VDES 기술 세미나를 실시하였다. 중국은 대련해사대학과 사우스아이스트대학 등 학계를 중심으로 VDES 해안국, 선박국 뿐만 아니라 VDES 위성개발을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. 우리나라도 한국형 e-Navigation 사업을 통해 VDES 통신시스템의 시제품 조기개발을 통해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, 해

양사고 저감과 육상과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차세대 해상무선 통신기술에 대한 연구를 더욱 활성화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. 

\* 본 연구는 해양수산부 재원으로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과 한국형 e-Navigation 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'IMO 차세대 해양안전종합관리체계 기술개발' 연구결과 중 일부이다.

## [참고문헌]

- ITU-R M.2092-0, 'Technical characteristics for a VHF data exchange system in the VHF maritime mobile band', 2015.
- IALA G.1139 Ed. 1, 'The technical specification of VDES', 2017.12.